

조경수의 다양한 활용

# 09 국립중앙박물관의 나무들



부채의 등속 조경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정갈한 산책로



조수연

(주)이자인\_이사

[www.ezign.kr](http://www.ezign.kr)

E-mail : [landivity@hanmail.net](mailto:landivity@hanmail.net)



계류에서 미르못으로 이어지는 계류

지난 9월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경복궁, 덕수궁, 옛 조선총독부 건물 등으로 옮겨 다녔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곳이기도, 2005년 10월의 개관은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당연히 개관당시 관심이 쏠렸고, 외부공간의 조경도 이슈가 되었다.

기대감을 갖고 찾은 국립중앙박물관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잔잔한 수면이 건물을 비추는 거울못과 웅장한 박물관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생각보다 너른 거울못, 장방향으로 뻗은 건물의 당당한 규모를 느끼며 계속 앞으로 걸으면, 건물의 중앙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곳이 동관과 서관을 잇는 '열린마당'이다. 이 마당은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개념에 따라, 하나로 연결된 건물의 가운데에 배치된 열린 공간으로, 우리의 전통 공간인 마루를 상징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의 중앙박물관 건물은 무엇보다 이 열린마당을 통해 형성되는 프레임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산의 모습이 강한 이미지를 형성해주고 있었다. 서울을 상징하며, 또한 국가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남산을, 건물의 프레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드러내는 듯 보였다.

미르못에서 생태연못으로 이어지는 계류

## 조경 공간을 둘러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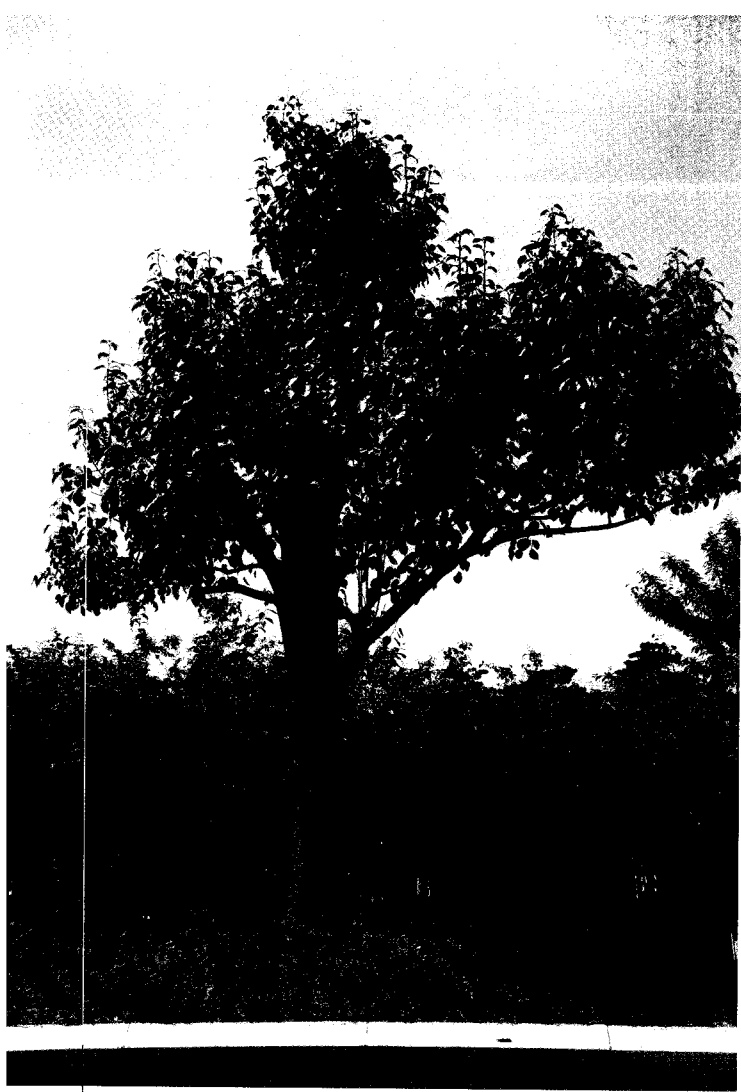
건물의 전면에 후면이나 측면에 비해 훨씬 넓은 조경공간이 자리한다. 중앙에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울못'과 광장, 동편의 석조물 정원, 불상 정원 등의 전시 및 산책 공간, 건물 앞의 테라스 휴게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석조물 정원과 연결되는 동측 부지에는 미르폭포, 계류, 넓은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거울연못을 따라 동측으로 걸으면 몇 개의 갈림길이 나오는데, 석재 혹은 흙으로 포장된 산책로는 단아한 느낌으로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한다.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면 소나무 하부에 맥문동 꽃이 핀

아름다운 공간들도 만나게 되고, 전통 석물이나 불상, 탑들이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준다.

산책로 중에는 미르못(폭포)으로 연결되는 길도 있는데, 가을 풍경을 연출하는 계류를 건너면, 바로 미르못이 등장한다. 미르는 용의 옛말인데, 이곳에는 안개분수가 피어오르고 잔잔한 폭포도 조성되어 정말 전설의 용이 살았던 곳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다양한 키 큰 나무들이 독립적으로 심겨 있기도 하고, 관목이 군식되어 있기도 한데,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느낌 때문인지 다른 어떤 공간보다 정갈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덕도 있겠



아담하게 서있는 돌배나무

나, 전반적으로 정제된 조경을 추구하여 산만하거나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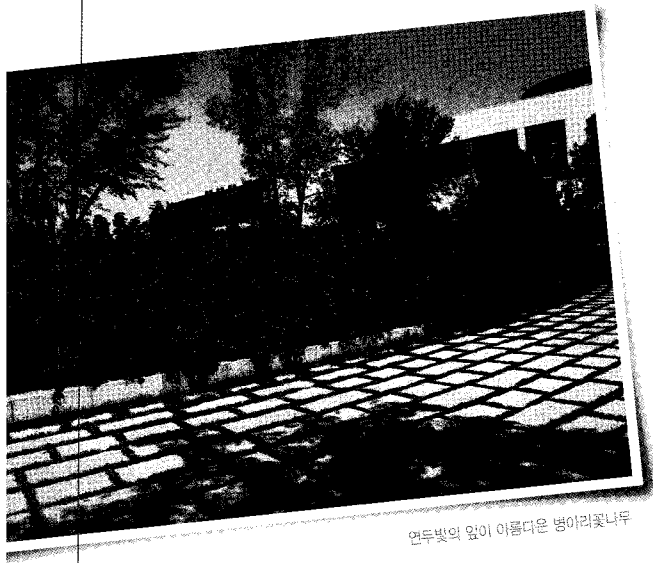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나무들

이번 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나무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국가를 상징하는 박물관이라는 장소성 때문인지, 지금까지 소개하지 않았던 나무들이 많이 보였고, 그래서 다양한 조경수종을 식재하면서도 재미있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에 대한 성상보다는, 한두 가지 특성과 함께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소개한다.

**돌배나무** : 박물관 서측 건물 앞에서 만난 아담한 돌배나무. 이름에 '돌'이 들었기 때문일까, 크지 않은 키에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 다. 키는 5m까지 자라며, 껍질은 세로로 잘게 갈라진다. 당연히 열매가 궁금한데, 열매는 아이 주먹보다 작아서, 지름이 3cm 정도이고 가을에 다갈색으로 익는다. 돌배는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서도 먹고 약으로도 쓰인다.

**느릅나무** : 석조물 정원 앞에서 만난 느릅나무. 이름의 '느릅'은 힘없이 늘어진다는 '느른히'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는데, 껍질을 물에 짓이기면 끈적이는 풀처럼 되는 것에서 유래를 짐작한다고. 서양에서는 느릅나무를 '엘름(Elm)'이라 하며, 재질이 좋고 쓰임새가 넓은 나무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공원이나 정원에 널리 심고 가로수나 분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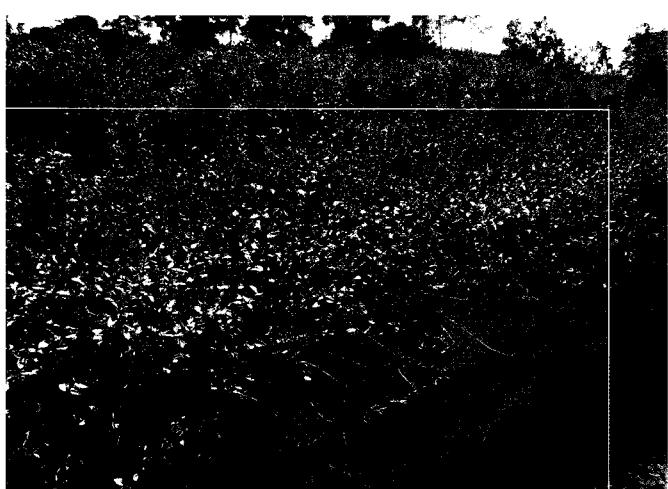
**병아리꽃나무** : 거울못 근처 가로 식재대에 심긴 병아리꽃나무. 병아리꽃나무는 장미과의 나무로 한국 원산이다. 이름은 꽃과 열매를 병아리에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잎도 연두빛이라 병아리 색깔을 닮은 듯 느껴졌다. 키는 1~2m에 달하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흰색 꽃이 4~5월에 어린 가지 끝에서 핀다.



연두빛의 잎이 아름다운 병아리꽃나무



흔하지만 더욱 새롭게 느껴진 국수나무



테라스를 장식한 줄사철이 건강해 보인다

**국수나무 :** 건물 앞의 녹지대에서 만난 국수나무. 국수나무는 동네 뒷산 오솔길이나, 산길의 기슭, 골짜기 등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인데, 줄기가 붉으면서 약간 흰빛을 띠고 있다. 가지를 잘라서 찢어보면 드러나는 고갱이도 국수면발을 닮았다고 한다. 국수나무를 보며 실제 국수를 연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특정 장소, 시기에 보면 국수처럼 보였을지도.

**줄사철 :** 거울못이 내려다보이는 테라스 쉼터에서 만난 줄사철. 가지를 전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풍성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였다. 밀식되어 있어 흠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나 충만한 느낌을 준다. 다소 두꺼운 잎은 길이가 2~5cm, 너비가 1~2cm로 마주나는데 가장자리에 고르지 않은 톱니들이 있다.

일반 공원이나 가로에서는 잘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나무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글에서 소개한 수목은 그 일부분일 뿐이며, 식재된 나무에 대한 견해도 제각각일 수 있으므로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하고 아름다운 수목들을 찾아내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도 많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의미는 남다를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산책을 할 때, 평소 보지 못했던 수목을 접하고 관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리고 그 나무

에는 짧은 안내가 달려 있어서 나무 이름의 유래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더욱 즐겁게 나무와 조경 공간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웅장한 건물과 내부의 최신식 시설에 뿌듯함이 들었던데 반해 실제 전시되어 있는 유물의 양은 생각보다 적어 아쉬웠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유물, 외국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우리의 유물도 있을 터이고, 해외 유물들을 다양하게 전시할 수도 있을 터이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이 보다 확충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늘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가을의 시작을 알리줄 감나무 열매